연극 전공 대학생들의 댄스스포츠 체험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Dance Sports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in Theater

홍 서 현, 오 세 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Hong, seo-hyun, OH Se-Kon
Soonchunh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연극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다양한 문제점(한정된 자기개발, 불안정한 정서인식 등)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관점을 댄스스포츠를 체험을 통한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실제사례를 통한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로는 첫째. 움직임을 하면서 신체에 대해 이해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셋째, 외적으로는 디테일한 연기력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시선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정적인 움직임과 특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기를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넷째, 댄스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체험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연기의 표현방식과 댄스스포츠의 표현방식을 굉장히 유사하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남녀가 한 쌍으로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스포츠는 신체발달과 미적가치를 함께 길러주는 스포츠 및 예술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 중의 으뜸으로 부각되고 있다.[2] 즉, 댄스스포츠는 융합예술이다. 또한 역동적이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상당한 운동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체를 균형적으로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를 만들어 주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극 전공생 혹은 연극배우 및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는 전공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여기서 배우가 몸을 잘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은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무대에서의 배우의 움직임은 일상에서의 움직임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3] 신체뿐만 아니라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는 '나'라는 주체가 바로 서야 하는데 '나'라는 주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객관화 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배우는 감각 훈련 등을 통해 자기와 세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관찰해야만 하는 것이다.[1]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로는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에 연극전공 재학생 10명 (남자 5명, 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배경

참여자	성별	나이	연기 경력	댄스스포츠 경력
A	남	26	6년	3개월
B	남	26	9년	1년
C	여	23	4년	5개월
D	남	25	6년	4년
E	여	27	2년	7개월
F	여	23	6년	1년
G	남	24	13년	5년
H	여	24	4년	1년
I	여	23	2년	4개월
J	남	24	8년	3개월

2.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체험을 하기 전과 체험을 한 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인식 변화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 효과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표1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을 3차에 걸쳐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결과

1. 댄스스포츠의 매력

(A)~(J)까지의 참여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나왔다. 그 중에서는 댄스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크게 변화가 되었다. 우선 댄스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참여자들이 체험을 통해 관심도가 높아졌다. 또한 댄스스포츠에 관한 서적을 읽는다던지 아니면 매체를 통해 댄스스포츠를 찾아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유연성과 몸과 음악의 접속시키는 능력향상이 되었고 리듬감 향상과 몸의 강약조절 사용이 가능해져 신체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참여자(A)는 '댄스스포츠를 체험하기 전에는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험 한 후에는 움직임에 대한 자유로움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참여자(G)는 '사례를 이야기 하자면 댄스스포츠를 접하기 전에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이성에게는 더욱이 말은 걸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저의 성격은 연기할 때도 드러나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스스포츠를 체험 한 후에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성에게 말을 건 다던가, 쉬는 시간에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자신감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저에게는 개선되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2. 호흡과 시선 그리고 집중

표1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대답이 있었다. 모두 댄스스포츠는 연기력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E)학생은 '연기는 언어의 표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댄스스포츠의 움직임 체험을 통해 연기는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댄스스포츠를 지속적으로 더 배운다면 더욱더 저의 연기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G)학생은 '배우와 배우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간의 호흡인데 댄스스포츠를 하기 전에는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혼자 연기하고 상대배우와 약속한 것만 지키는 것이 호흡이라고 어느 순간 착각하고 있었는데, 댄스스포츠는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몸소 체험하면서 파트너와의 거리감도 자연스럽게 줄여지고 친밀감도 생겨서 호흡을 맞추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을 맞추다보니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서로 잘 지키자 라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눈빛과 상대배우의 대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답을 하였으며 (B)학생은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표현의 도구가 하나 더 늘어난 겪이기에 기존의 표현했던 방식보다 더 다채로워지고 다양하고 세밀한 표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기 훈련을 함에 앞서 댄스스포츠를 배우면서 배웠던 기본동작을 수행하면 연기훈련에 임하는 몸의 기본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 (I)학생은 '움직임의 폭이 넓어져 작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기를 할 때 시선으로 많은 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시선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상대배우에게 전달하는데 댄스스포츠를 체험하기 이 전에는 시선처리 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댄스스포츠를 체험한 후에는 상대배우를 볼 때, 공연을 하다가 관객과 눈을 마주쳤을 때 등등 시선 처리하는 것에 있어 좀 더 수월함을 느꼈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라는 답변을 하였다.

Ⅳ. 결론

연극 전공 대학생들의 댄스스포츠 체험을 통한 움직임과 정서인식 변화가 심층면담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째. 움직임을 하면서 신체에 대해 이해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셋째, 외적으로는 디테일한 연기력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시선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정적인 움직임과 특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기를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넷째, 댄스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체험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연기의 표현방식과 댄스스포츠의 표현방식을 굉장히 유사하다. 이것은 연기를 배우는 학생에 댄스스포츠가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연기와 댄스스포츠는 연극과 다른 장르가 아닌 서로 상생되어져야 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므로 연극 전공 대학생들의 댄스스포츠에 대한 많은 참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김철홍,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 연극과 인간, 2007.02.23., 제6장 배우훈련을 위하여- p279
[2] 우유봉, 제1회 댄스스포츠 발전 세미나 :댄스스포츠의 이론과 실제, 한국댄스스포츠연맹,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소, 1997, p1-14
[3] 안민수, 배우수련, 김영사, 2009.10.09., 3강 몸 다스리기와 부호화. 1. 몸 풀기와 다듬기 p77